가톨릭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1차
논술고사 문제지【논술우수자 전형】 (문과)

지원학부(과) :　　이 름 :　　수험번호 :

<수험생 유의 사항>

▶ 수험생의 신원을 알리는 어떤 표시도 하지 마시오.

▶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1과 문항 2 각각, 띄어쓰기 포함 350~400자 / 각 40점)

[문항 1] 제시문 (가)~(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도덕적 의무에 관한 글이다. (가)~(라)를 논지에 따라 두 묶음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눈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항 2] 우리나라의 빈곤층을 돕기 위해 기부하는 대신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기부해야 하는지를 제시문의 논지에 근거해 논술하시오.

(가) 인간이 가진 정의(正義)의 관념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한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정의로운 관계 안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동료 시민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정의롭기를 바라는 데서 더 나아가 이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어느 누구와도 동일한 정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야 한다. 모든 사회제도는 정의의 관념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국가라는 사회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국가가 견고하고 훌륭한 질서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다른 구성원들과 정의로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정의를 실현하는 어떤 공동의 제도 체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안에서 확립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그러한 공동의 제도 체계가 세계 전체에서도 확립되기를 또한 바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일관된 태도일 것이다.

(나) 정의(正義)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가치이다.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제도는 정의가 가치를 가지도록 해 주는 매개체이다. 우리는 국가를 매개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먼저 시민적 관계를 맺게 되고, 그 후 상호 합의된 공정성과 동등성의 기준에 따라 그들과 정의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 가지는 정의의 의무는 우리가 전 인류에 대해 가진다고 말하는 다른 의무,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무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다. 정의는 사회제도를 공유하는, 즉 강한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한마디로 정의는 결사적(結社的) 의무이다. 정의의 의무가 미치는 범위와 우리가 맺고 있는 결사 관계의 범위는 동일하다.

(다) 우리 각자의 자아 정체성은 동심원의 모음으로 비유할 수 있다. 가장 작은 원은 한 인간의 영혼 및 육체를 둘러싸고 있다. 두 번째 원에는 자식,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가 들어온다. 세 번째 원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조카가 포함되며, 그 다음 원에는 다른 친척들이 포함된다. 그 다음 원은 같은 나라 사람들을 포함한다. 가장 큰 원은 전 인류를 둘러싼 원이다. 훌륭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원을 가장 작은 원을 향해 끌어당기는 일이다. 우리가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각 인격체에 대한 거리를 좁힌다면 그만큼 정의(正義)의 덕성에 가까이 도달한 것이며, 또 그만큼 우리의 자아는 커진 것이다.

(라) 군자는 인(仁), 의(義), 예(禮), 지(智) 네 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인의 정신을 실천해야 할 가장 가깝고 중요한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다. 그래서 공자는 “부모님을 섬기는 효가 인의 근본이 되느니라.”라고 말한다. 모든 사회적 관계의 기초는 가정이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훈련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인은 사람에 대한 ‘어짊’ 혹은 ‘사랑’의 뜻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구별된 사랑이다. 이 점을 헤아리지 못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묵자가 바로 이 점을 보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구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